

## 오피니언

## 금남로에서

신 향 락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배로 친다면 유통을 올린 지 5년 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표류 중이다. 혼란한 환로에, 사공들 마저 갈등이 심해 자칫 산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 전남도청 별관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당초 글년 말 완공 예정에서 2014년으로 준공이 미뤄졌지만 이 계획 또한 미지수다. 그야말로 광주의 ‘잃어버린 3년’인 셈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취임 직후 ‘문화전당 내 5개 건물 중 일부라도 2012년에 부분 준공토록 하겠다’는 의지도 ‘립서비스’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 고통 담보로 한 허송세월

지난 2008년 6월 5·18 구속부상자회 등으로 구성된 ‘구 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별관 철거를 반대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년 여만에 별관을 부분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공동대책위로부터 역할을 위임 받은 시·도민대책위가 이 마지막 아니라고 하니 다시금 표류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3년에 가까운 허송세월은 전당 건립의 차질은 물론 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적지 않은 폐해를 야기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불용예산만 2500억 원에 달해 매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광주의 ‘잃어버린 3년’

시민들이 차량 통행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이 일대 상가들이 장사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일이다. 그럼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것은 별관 보존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지난 7일 동구청에서 열린 ‘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장 초청 설명회’에서 동구 주민과 상인들이 문화전당의 조속한 완공과 전당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를 대표한 시·도민대책위 역시 시민의 대표격인 지역 정치권도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변명일 뿐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동구 출신의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7명 의원 모두가 ‘남의 일’로 여겼던 게 사실이다. 별관 존치 여부에 대한 소신 입장이나 중재자 역할을 기피한 자체가 시민사회단체에 맹보이지 않겠다는 속내가 아니었던가. 광주 시의회 또한 입을 달리고, 이 지역의 뒷발이라고 하는 민주당도 면 산 쳐다보듯 외면한 저의가 다른 데 있지 않다. 정치적 계산 탓이다.

시민단체를 대표한 시·도민대책위 역

시 위상에 걸맞는 처신을 해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9월 별관 보존 방식에 대해 광주시와 합의해 놓고 그 3개월 뒤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 정치적 계산이 부른 폐해

대책위가 철회 이유로 아시아중심도시 추진단이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광주시와 합의한 당시 자체 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다. 추진단은 당초부터 ‘부분 보존’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철회 이유가 될 수 없다. 합의 당시 내부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주장도 책임 소재는 그 쪽에 있는 것이다.

이제 구 도청 별관문제는 일방적인 ‘아니다’나 ‘언제까지’란 있을 수 없다. 도청 별관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장과 의회의장, 이 지역 국회의원 8명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가 나선 만큼 시·도민대책위와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문화지도가 분명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일진데, 광주 사람들이 ‘표류’한다면 타지역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예향·의향이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시장 독표인 ‘행복한 창조도시’가 무색할 지경이다. 배가 산으로 간다면 말이다.

〈논설주간〉 hlshin@kwangju.co.kr

## 고통 담보로 한 허송세월

시민들이 차량 통행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이 일대 상가들이 장사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일이다. 그럼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것은 별관 보존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지난 7일 동구청에서 열린 ‘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장 초청 설명회’에서 동구 주민과 상인들이 문화전당의 조속한 완공과 전당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를 대표한 시·도민대책위 역

## 은펜칼럼

류동훈



최근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필자에게는 하나의 일과가 생겼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유튜브 접속이 수월하기 때문에 손쉽게 동영상 방송을 볼 수 있다. 최근 하고 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3살, 5살 딸들이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우상 ‘뽀로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1시간 정도 틀어준다. ‘뽀로로’를 틀어주면 집안에 평화가 온다. 온통 방을 뛰집고 다닌 아이들은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놓고 ‘뽀로로’를 보며 사이좋게 앉아 손바닥 만한 화면에 집중을 한다. ‘뽀로로’를 보다 조금 짙으면 ‘코코몽’을 틀어달라고 한다. ‘코코몽’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김

내용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모자나 티셔츠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만든다. 캐릭터를 주제로 한 동요도 만들고, 대중가요도 만든다. 아이들의 맑은 마음을 사로잡은 캐릭터는 어른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문화 도시의 여유를 선율하며 다시 한번 문화 도시 도약을 위해 무엇인가를 찾아나서는 열정을 되찾아 줄 것이다.

다시 찾은 그 열정으로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를 창조하자. 며칠 전 행복문화사업단에서 만든 시민창조 노래 중 하나인 ‘사

## 아시아문화도시의 ‘뽀로로’

대중컨벤션센터 체험행사에서 가족들과 뮤지컬을 보며 찍어둔 영상들과 함께 보여주면 아이들은 열광을 한다.

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벌써 8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 우리에게 꿈과 신바람이 남아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

어린 아이들이 ‘뽀로로’와 ‘코코몽’에 열광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아시아문화 도시에 대해 열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뽀로로’와 같은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문화도시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 콘텐츠는 시민계통 같은 의도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풍성한 상상력으로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랑하는 어머니’에 맞춰 아이가 춤을 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아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한 번씩 보여 준다. 자기 자신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아이의 표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한 문화를 함께 누릴 때 행복해지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과학의 법칙이다. 자신들의 인생을 노래하고,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그것을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이용해 영상으로 담아 다시 공유하고 누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창조의 열정이 살아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도정 앞에 만들 것이 아니라, 내가 탄 승용차 안에 우리 집 엘리베이터 안에, 거실 안에, 화장실 안에 만들며 행복한 문화를 창조해 갈 때 진정한 문화도시의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사회적기업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 선진국처럼 출산정책 정부가 적극 나서야

최근 일본에 갔다가 일산부가 있는 일본 가정에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일본 정부가 일산부에게 쏟아붓는 서비스를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병원비가 대략 30만엔 정도 나온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6만엔 수준으로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또한 출생신고를 하면 어느 가정이든지 30만엔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양정숙·광주시 남구 구소동

을 껴울 찾은 눈으로 교통사고, 낙상사고도 많고 감기환자까지 급증해 병원 응급실마다 북새통이라고 한다.

필자는 근무하는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도 겨울이면 병원 응급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긴장감이 감돈다.

아름다운 설경이 그려내는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볼 때는 그저 행복하지만, 이내 걱정과 우려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타운의 현실이다.

이곳은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눈길, 빙판길 낙상사고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겨울의 눈 오는 날

힘들어 손바닥에 물집이 잡힌 몇몇 직원들을 보면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컸다.

우리 빛고을타운과 효령타운은 특히 넓은 부지에 건립되어 눈을 치워야 하는 곳도 절대적으로 많다. 타운 진입로에서부터 시작하여 넓은 주차장, 산책로, 셔틀버스에서 내려 걸어 들어오는 곳까지 전 직원들이 꼬박 한 두 시간 이상을 치워야 제설작업이 끝난다.

다목적 제설차량을 구입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기계가 사람의 손길을 다 대신할 수

## 설경(雪景)을 보는 마음

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는 아침이면 남구 빛고을타운과 북구 효령타운 전 직원들은 어느 부서를 맴돌고 오전 7시까지 출근을 한다. 버스로, 도보로 새벽부터 집을 나선 직원들은 출근과 동시에 제설도구들을 쟁쟁하고 텁텁한 맛을 제설구역으로 달려간다.

평소 같으면 미니스키트를 곱게 차려 입었을 때 맛없이 어지러운 눈을 오는 날은 작업하기 좋은 창조의 열정이 살아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도정 앞에 만들 것이 아니라, 내가 탄 승용차 안에 만들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문화도시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 콘텐츠는 시민계통 같은

는 없기 때문이다.

직원들에게 눈 오는 게 좋으냐고 가끔 물어본다.

필자도 눈 오는 날 가장 먼저 출근하여 같이 제설작업을 하는 입장이기에, 물어볼 자격조차 없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용기를 내 물는다.

직원들은 답한다. “겁나요”, “눈 운다는 예보가 있으면 일찍 못 일어날까 봐 몇 번씩 잠을 깨웁니다.”, “그래도 아직은 철이 없어 눈 오는 게 좋아요.”

마지막 대답은 한 직원에게 속으로 ‘내단하디’는 마음을 갖는 순간, 느닷없이 이어지는 말이 가슴을 친다. “산타탈아버지, 올해 우리 타운에 제설차량 선물해주세요.”

지난 연말에도 한마음으로 소외 이웃을 향한 ‘사랑나눔 행복릴레이’를 펼친 우리 재단 직원들의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소원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타운에 내리는 눈! 결국, 재단 일꾼들의 따뜻한 가슴이 녹여내고 있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기획관리본부장〉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mail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시 설

## 여수산단 또 정전 이번엔 꼭 원인 밝혀야

그에 따른 대책이나 사후관리가 치밀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사고 당시에도 산단 내 일부 전력공급체계의 취약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고, 당시 일부와 한전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정전사고가 반복된 것은 정부와 한전의 재발방지 약속이 구두선(口譲禪)이었음을 입증한다.

여수산단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종주적 집합체로 국가 보안등급 가급 시설이다. 대규모 장기산업들이 밀집해 있어 전기가 1초라도 끊기면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한 중요 산업시설인 셈이다. 이런 국가중추 기간산업단지에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전력사고가 어떻게 되풀이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여수산단 정전사고가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전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원인 파악과

그리고 원인을 놓고 한전 측과 여수산단의 정전사고 주가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05년 대전 대역연 구개발특구에 이어 6년 만에 특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광주가 이제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 R&D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 연구 개발의 차별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우선 R&D가 차별화되고 정부의 지원이 지속돼야만 그에 걸맞는 외국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지난 2004년 이후 우리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27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3.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좋은 예다.

특구는 대학과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혁신 주체와 지원시스템의 체계화·전문화를 통한 지속발전형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된다. 특구는 특히 기반 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을 국가가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 R&D 특구사업에 국비만 무려 1조 145억 원이 투입된다.

연간 6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자돼 국내외 연구기관과 기업의 특구 이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법 적용을 받아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전액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광주시는 특구를 국제개방형으로 이

## 無等鼓

최근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됐던 정동기 전 대검찰장이 청문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나마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2007년 11월 대검찰장에서 물려난 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7개월간 약 7억 원을 벌었다는 점이었다. 물론 ‘법무법인’에서 정당하게 급여로 받은 것이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표정은 다소 무거웠던 것이 사실이다.

한 달에 1억 원을 급여로 주고받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해하지만, 과연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살인적인 물가와 교육비 부담, 실업의 고통에 허덕이는 민족들이 땀과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줄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부(富)는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저 높은 곳의 부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아직까지 편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어렵게 설명해야 할까.

/송행기 정경부 차장 redplane@

##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